

■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부문별 우승자 인터뷰

“자랑스런 아빠 될 수 있어서 기뻐요”

풀코스남 심재덕씨



후 달리기가 좋다는 말에 마라톤에 입문했던 그는 지금은 마라톤 마니아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로 통한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2연패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풀코스 남자부 우승자인 심재덕(40·경남 거제)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먼저 결승 테이프를 끊으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초등학교생인 아들·딸에게 자랑스런 아버지가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해 대회 4위 恨 풀었어요”

풀코스여 진애자씨



한 실력파다. 진씨는 짧은 경력에도 마라톤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수십 년간 등산으로 다져온 체력이 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3·1절 마라톤 대회 4위에 머무른(恨)을 풀었습니다.” 풀코스 여자부 우승자 진애자(50·대구시 북구 읍내동)씨는 3시간 7분 19초 기록으로 끝냈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내년 대회 풀코스 우승 도전하겠다”

하프코스남 백영인씨



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인생의 가장 절친한 동반자가 됐다. 백씨는 “마라톤은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자 나를 채찍질 해주는 조연자”라며 “우승도 기쁘지만 최선을 다한 나 자신에게 칭찬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하프 코스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이제 풀코스에서 우승해야죠.” 하프 코스 남자부 1위로 끝난 구미사랑 마라톤 동호회 소속 백영인(35·경북 구미시 송정동)씨는 “뜻깊은 대회에 참가한다는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는데 우승까지 해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맑은 공기 등 최고의 마라톤 환경”

하프코스여 이정숙씨



별개 1위로 끝내면서 우승 신화를 이어갔다. 마라톤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있다는 이씨는 “깔끔한 거리와 맑은 공기 등 최고의 환경에서 멋진 레이스를 펼치려 기쁘다”고 말했다.

“처음 출전한 3·1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기쁨이 두 배입니다.” 하프 코스 여성부 정상에 오른 이정숙(43·충북 천안)씨는 천안시체육회에서 육상 꿈나무를 키우고 있는 여자 마라톤 국가대표 출신의 육상 지도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허벅지 통증 이겨낸 우승, 더욱 기뻐”

10km남 김수용씨



승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마라톤 경력 4년차 김씨는 풀코스 2시간 30분 완주 기록을 보유한 실력파다.

“컨디션 난조로 10km 출전하는데 만족하려 했는데 우승하게 돼 기쁩니다.” 대전 베스트 마라톤 동호회 소속 김수용(34·대전시 서구 만년동)씨는 10km 남자부 1위로 결승점을 통과한 뒤 “몸이 좋지 않아 10km 상위 입상도 힘들 줄 알았는데 우승하게 돼 다행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절에 만전을 기해 반드시 하프코스에서 우승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남편과 매일 달리기 데이트 큰 힘”

10km여 여종선씨



간 이삭씨 뛰는 게 우승 비결이라고 전했다. 여씨는 “애들도 키워야 하고 집안 살림도 해야 하는 주부들에게 이만한 운동은 없다”며 “즐거면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고 덧붙였다.

“남편과 데이트 시간을 따로 정해야 하나요? 마라톤을 함께 뛰는 게 바로 데이트죠.” 10km 여자부 우승자 여종선(37·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씨는 “다른 대회도 아니고 역사적인 3·1절 마라톤 대회에 첫 출전, 우승까지 거머쥐게 돼 더욱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올해 첫 출전서 1위 기분 좋네요”

5km남 김동욱씨



다. 또 2006년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 풀코스 우승자이기도 하다.

“올해 첫 출전한 마라톤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기분이 좋습니다.” ‘광양 마라톤클럽’ 회원인 김동욱(42·광양시 죽동)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5km 남자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하면서 몸을 만든 김씨는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 마라톤은 내 인생의 활력소”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10kg 감량 몸짱 내년에도 뛰어야죠”

5km여 남미옥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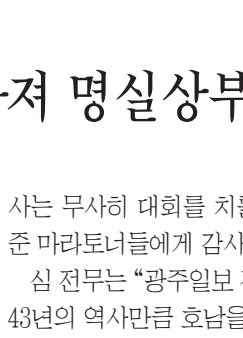
다. 마라톤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남씨는 10kg 체중감량에도 성공하면서 ‘몸짱’으로도 거듭났다.

“예상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기분 좋습니다.” 5km 여자부 우승자 남미옥(42·전북 군산)씨는 처녀 출전했던 지난해 10km 부문 3위를 차지한데 이어, 올해는 5km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3·1 마라톤과의 인연을 이어나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매년 기록도 좋아져 명실상부한 호남 대표 마라톤 굳혀”

심판총괄계시 심재용씨



사는 무사히 대회를 치를 수 있게 협조해 준 마라토너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완연한 봄기운을 알리는 화창한 날씨 덕분에 출전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 ‘축제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심판총괄계시 맡은 심재용(49·광주시청 육상감독)광주육상연맹 전무이사

심 전무는 “광주일보 전국마라톤대회는 43년의 역사만큼 호남을 대표하는 마라톤 행사로 자리매김 했다”며 “아마추어 축제지만 좋은 기록들도 많이 양산돼 0.1초차로 순위가 바뀔 수 있어 심판들도 경기진행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말마음 심 감독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 제자 스카우트 하는 헌신적인 지도력으로 김재, 박태경 등 한국육상을 대표하는 스타들을 키워낸 ‘명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고 싶은 대회로 자리매김 했다”며 “내년에는 전국에서 더 많은 참가자들이 방문해 레이스를 벌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이색 참가 선수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에 한 몫 한 것 같아요”

하프코스 완주

임내현 前 광주고검장



고 소개했다. 마라톤 마니아로 알려진 그는 이번 대회에서 1시간 47분의 좋은 기록을 작성하며 넘치는 체력을 과시했다.

“1시간 45분대 주파를 못해 아쉽지만 2시간 안에 끝내 다행입니다.” 지난 2005년 이후 3년만에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하프코스 완주에 성공한 임내현(55) 전 광주고검장은 “시·도민과 함께 3·1절을 맞아 뜻있는 레이스를 펼친 것에 큰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임 전 고검장은 “이렇게 좋은 기록으로 끝인, 시민들에게 자극을 주고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번 대회 통해 나라사랑 정신도 키웠죠”

한복에 태극기 달고 뛴

경북 의성군청 이갑수씨



시간40분으로 당초 목표보다 5분 가량 늦은 기록이었지만 만족해 하는 표정이었다. 이씨는 “많은 사람들이 복장에 관심을 보인 만큼 ‘나라사랑’ 홍보도 잘 된 것 아니냐”며 밝게 웃었다. 올해 목표는 오는 8·15 광복절 마라톤대회 때 풀코스에 도전해 완주하는 것이다.

3·1절을 맞아 이갑수(51·경북 의성군청 직원) 씨가 ‘독립투사’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새겨진 흰 한복 차림에 10여개의 태극기(가로 30cm, 세로 25cm)를 달고 하프코스를 완주해 눈길을 모았다. 이씨는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색복장으로 대회에 참가한 이유는 잊혀져 가는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4년 전 마라톤을 첫 시작한 이씨는 하프코스 참가는 올해가 처음. 공식 기록은 1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 이색 참가팀



“마라톤 열기 이어 U대회 유치 꼭 이룬다”

■ 광주시청 마라톤 동호회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광주에서” 1월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열린 광주시 월드컵경기장 본부석 맞은편 관람석에는 관람석 전체를 덮을 듯한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 기원 대형 프랭카드가 시·도민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새마을협의회·해병대전우회·시 자원봉사자·시민서포터즈 등 7개단체 80여명과 함께 U대회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맛 따라 멋 찾아 남도로’ 대형 현수막 눈길

■ 전남도청 마라톤 동호회

“한국인의 고향 남도로 오세요.” 전남도청 마라톤 동호회원 100여명에게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와서 올해가 광주·전남 방문의 해인지 알았다”며 “이디를 가면 좋겠느냐”고 관심을 보였다.

경남 함천에서 온 이인식(38)씨는 “3·1절 마라톤 대회에서 와서 올해가 광주·전남 방문의 해인지 알았다”며 “이디를 가면 좋겠느냐”고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이날 ‘맛 따라 멋 찾아 남도로 오라는 배너를 만들어 가슴에 달고 뛰었다. 월드컵 경기장 전편과 전광판 하단에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전국에서 모인 마라토너들의